

지역 소식통

고창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 사전교육

고창군이 지난 15일 고창군청 소년수련관에서 2022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를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오는 20일 1차로 입국하는 네팔 계절근로자 입국에 앞서 사업설명, 고용주 필수 준수사항, 무단이탈 발생시 조치사항, 인권침해 예방 교육 등을 설명하기 위하여 지난 3월 법무부 승인을 받은 농가주 11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에 따라 농촌인력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단기간에 합법적으로 농가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이번 교육을 마친 후 다음주 입국하는 네팔 근로자 100명은 계약한 농가에 배치된다. 또한 MOU체결 근로자 고용농가 외에 20여명의 결혼이민자 친척 초청 농가도 이번 교육에 참석하여 고용주로서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게 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스카우트 지도자 훈련 상급과정 공개모집

부안군은 2023 제25회 세계스카우트대회 성공개회 및 부안지역 스카우트를 이끌어갈 전문지도자 양성 등을 위해 스카우트 지도자훈련 상급과정 참여자 20명을 오는 29일까지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상급과정 참가자는 부안군 2023 세계스카우트대회 지원 조례에 의거해 훈련비 전액을 지원 받는다. 이번 상급과정은 출포만갯벌 생태관광에서 오는 5월 20~22일과 5월 27~29일 등 각 2박 3일 일정으로 2회 진행되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 참가대상은 스카우트 초·중급과정을 이수한 부안군민으로 세계대회 성공개회와 부안스카우트 발전에 함께 할 지도자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기타 사항은 부안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새만금발전과 캠퍼리운영팀(☎ 063-580-4011)으로 문의하면 된다. /부안=김성진 기자

정읍여성새일센터, 놀이 교육 지도사 과정 교육

정읍여성새일센터(이하 새일센터)가 18일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교육훈련 '놀이 교육지도사 과정'을 시작했다. 놀이 교육지도사 과정은 전라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역 맞춤형 교육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20명을 대상으로 8월 2일까지 운영된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등 변화하는 교육 동향에 맞춰 현장에 바로 투입되어 일할 수 있는 현장실무 교육이다. 유아부터 청소년, 성인 모두가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적 가치에 기반한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계획·실행하는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추진한다. 교육 수료 후에는 지역 지원 등을 통해 여성들의 성공적인 취·창업 지원에 힘쓸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채질 개선 · 면역력 향상 · 항노화

고창군, 염전부지 해양생태치유벨트 중간보고회 열려

고창군이 대규모 염전부지를 활용해 해양생태치유벨트를 만든다. 국립세계자연유산센터 습지복원 사업 등 서해안권 해양치유산업의 중심도시로 발돋움하기 대내외다. 특히 마중물 사업적인 '노을생태계 보물창고 조성사업(국토부 106억원)'이 올해 국가예산 확보에 성공하면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창군은 염전부지를 중심으로 '국립세계자연유산센터(315억원)', '갯벌습지복원사업(450억원)' 등의 대규모 사업을 기획하고 있다. 특히 해양치유지구 지정과 치유센터 건립(450억원)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해양치유는 갯벌, 소금, 해조류, 해양경관 등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해 채질 개선, 면역력 향상, 항노화 등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하지만 이미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는 해수온천이나 해조류, 머드 등을 활용한 해양치유산업이 활성화돼 있다. 고창군은 "고창염전과 갯벌을 자연과 인간이 서로를 치유해주고 공생하는 공간으로 만들고, 풍부한 해양자원을 이용한 다양한 치유프로그램을 발굴해 고창비바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보행자 · 자전거 이용자... 안전한 정읍천 만들기 '총력'

자전거도로와 보행로 분리

정읍시가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모두가 안전한 정읍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는 정읍천 자전거도로의 보행로 개설공사 마무리 구간인 봉래교에서 시립박물관까지 보행로 개설사업에 착공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04년도에 자전거 전용도로로 고시된 상동교에서 시립박물관까지 길이 4.0km 구간은 보행자와 자전거의 충돌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곳이었다. 이에 따른 주민들의 불안감으로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간 다툼이 잦아 보행로 분리 개설사업이 요구되는 구간이었다. 시는 이 같은 주민 민원과 사고 예방을 위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사업비 11억4천만원을 투입, 송산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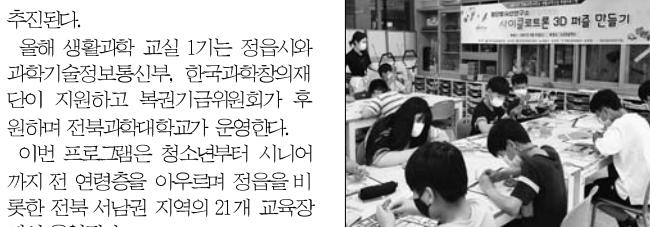
정읍시가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모두가 안전한 정읍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터 박물관까지 길이 1.0km 구간에 대해 자전거도로와 보행로를 분리 개설했다. 시민들의 웰빙 생활공간이자 친수공

간인 정읍천 자전거 전용도로를 훼손하지 않고 주민들의 보행환경을 개선해 안전하고 편리한 정읍천을 만들겠다는 의지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체험형 생활과학 교실로 창의적 인재 육성 '앞장'

정읍시가 과학기술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과 시민들에게 과학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8일부터 생활과학 교실을 운영한다. 생활과학 교실은 과학체험 기회가 적은 학생과 노인, 주부,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과학적 창의력과 호기심을 키워주는 프로그램이다. 생활 속 과학 원리를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체험형 학습을 운영함으로써 지역 과학기술 발전과 과학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과학기술 분야 교육 복지 실현과 사회적 가치 증진을 위해 추진된다. 올해 생활과학 교실 1기는 정읍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지원하고, 북권기공유원회가 후원하며 전북과학대학교가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소년부터 시니어까지 전 연령층을 아우르며 정읍을 비롯한 전북 서남권 지역의 2개 교육장에서 운영된다. 세부 운영 프로그램으로는 공기로 가는 자동차, AI 그림북, 암식의 순환 등 10개의 기초과학 수업과 코딩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참여 희망자는 전북과학대학교 생활과학 교실(T.063-530-9129)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후보자 부인 "남편에게 군수로 일할 기회 달라"

김성수 부안군수 예비후보 선거 사무소 개소식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부안군수 예비후보 선거 사무소 개소식이 18일 열린 가운데 부인 김은경씨의 호소가 참석 한 부안 군민들의 심금을 울렸다. 그는 "우리 남편을 도와 달라. 저는 12년 전이나 지금이나 단 한 번도 우리 남편의 출마를 말리지 않았다. 오히려 군수선거에 나가라고 했다. 남편은 38년간 같이 살면서 단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키지 않았다. 저는 우리 남편의 인격을 믿는다. 우리 남편의 인격을 믿기에 부안군수가 되면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한다. 여론에 앞서고도 세 번이나 실패한 저희 남편에게 일할 기회를 달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 경선에서 세 번이나 실패했지만 지금도 남편을 응원하고 있다며, 38년 결혼생활동안 단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은 남편의 인격을 믿는다고 자신했다. 김씨는 "남편에게 일할 기회를 달라"고 눈물로 호소하며, 개소식에 참석한 남녀노소 모두 눈시울을 붉혔다. 한편 김성수 부안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실 개소식에는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문찬기 부안군의 회 의장, 배광수 빛과 소금교회 목사를 비롯해 1,000명이 모였다. /부안=김성진 기자

정읍시의회 상임위

현장의정활동

정읍시의회는 제273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14일 상임위원회별로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에 나서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상섭)는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사업장 등을 방문했고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정상철)는 신대인읍 행정문화센터 신축현장 등을 방문했다. 정상섭 자치행정위원장은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을 미르샘분수, 수성레저 공간사업 등 조성이 마무리된 사업에 관해서는 시민들이나 관광객에게 시설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계사업추진 방안을 모색해 주도록 하고, JB금융그룹 통합연수원 건립 등 절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상철 경제산업위원장은 "신대인읍은 핵심적인 농촌 중심지인만큼 행정문화센터를 통해 단순한 행정업무의 장소가 아니라 시민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복지·문화·체육공간을 더해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할 것과 제주도보다 훨씬 당도가 높은 고품질의 민진류를 정읍에서 생산이 가능해지면 재배 능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 등을 요구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많은 관중이 함께하는 스포츠대회 유치"

유진섭 정읍시장 예비후보

유진섭 정읍시장 예비후보는 18일 그의 선거사무소에서 전북축구협회 김대은 회장(전 대한축구협회 부회장) 그리고 정읍축구협회 박성규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정읍 스포츠 분야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가지고 여러 의견을 교환했다. 유진섭 정읍시장 예비후보는 "지난 달 정읍시 국민체육센터에서 치러진 '춘계 전국 중고등학교 검도대회'에 무려 100여 개 팀 1,0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했지만, 대회가 무관중으로 치러지면서 방문객 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이었다"라고 밝혔다. 유진섭 정읍시장 예비후보는 "오늘부터 거러두기 및 행사와 집회 인원 제한이 해제됐고 대규모 공연이나 대회 등에 적용됐던 관계부처 사전 승인 절차도 사라진다는 질병관리청 발표가 있었다"라며 "많은 관중이 함께하는 스포츠대회를 유치해 일상 회복에 서도 앞서는 정읍을 보여줄 것"이라며 "대한축구협회의 관심과 지원 그리고 김대은 부회장의 스포츠계 역량이 정읍의 전국 규모 스포츠대회 유치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대은 전북축구협회 회장은 "국민체육센터에 기존 2개의 축구장에 더해 추가로 2면을 조성하면 총 8개의 축구장으로 정읍시가 투자의 스포츠 인프라가 전국 대회 유치를 위한 밑반이 될 것이다"라며 "관심을 가지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화답했다. 한편 유진섭 정읍시장 예비후보의 대표 공약 중 하나인 '전국 규모 스포츠대회 유치'에는 올해에만 '전국 유소년축구 페스티벌', '전국유소년축구 클럽축구대회', 전국 배구·볼링·공도·축구·게이트볼 대회 등의 생활체육 대회와 전문산수가 출전하는 전국 규모 배구·배구·당구·태권도·배드민턴 대회 등 17개 이상을 개최해서 정읍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목표가 담겨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농업 · 관광 연계 소비문화 조성"

김민영 정읍시장 예비후보

김민영 민주당 정읍시장 예비후보가 18일 "예로부터 정읍은 가사문화의 중심지로 풍류가 있던 도시"라며 "깨끗한 자연 속에서 스트레스를 날리며 정읍의 맛과 멋을 즐길 수 있는 맛있는 도시 정읍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단순히 새로운 먹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농업이나 관광 등 기존 사업과 연계한 소비문화를 만든다면 새로운 6차산업의 롤 모델로 성장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읍이 동화 성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동학을 대표할 먹거리 문화를 만들지 못했다"며 "고부·이평 등지에 경관농업과 연계한 녹두특화단지를 조성하고, 녹두음식과 테라피 산업을 함께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녹두가 대규모 생산될 수 있도록 신종종 도입은 물론 수매를 통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유망모델을 개척한다. 이와 함께 "칠보면에 설치된 물 테마뮤지엄은 여름철 한시적으로만 운영된다"며 "이곳에 동진강 생태전시관을 설치하고, 칠보면 일대엔 민물메운탕 특화거리를 조성해 정읍의 맛을 전국에 뽐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했다. 또한 "칠보면 일대에선 정순왕후를 테마로 한 민간축제 기획, 준비되고 있다"며 "음식특화거리는 추후 민물고기 양식, 친환경농업(논 메기 등)으로 이어지며 지역 대표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읍의 전통장류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유도할 수 있도록 조례제정을 통해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간장, 된장, 고추장을 정읍 특산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전통의 맛에 입맛이 길러진 어린이들은 지속적으로 정읍의 맛을 찾고 건강하게 자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예비후보는 "이름난 식음들이 수많은 관광객을 유도하고 있다"며 "정읍의 깨끗한 환경에서 생산된 나물 등은 한바탕 보양과도 같은 음식으로 건강관리를 전 국민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어르신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도입"

이학수 정읍시장 예비후보

이학수 정읍시장 예비후보가 18일 정읍발전 정책공약 다섯 번째인 보건 의료·복지 분야의 첫 번째 공약으로 "어르신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 예비후보는 "또한 폐렴과 독감 등에 대해서도 60세 이상 고령층의 무료 예방접종을 확대하고, 신속한 방역으로 팬데믹 등 각종 질병에 안전한 정읍을 건설하며 100세 시대의 모범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정읍시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05년에 20.7%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뒤, 2018년 25.9%→2021년 28.4%(8월 현재 30.41명)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은 2047년 전북의 65세 이상 인구를 55.3%로 예측하고 있어 정읍시 역시 노인인구의 증가는 불을 보듯 뻔해서 이에 따른 고령화 사회의 부양 케어가 미래 가구의 최대 현안이 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노인 고령층에 대한 지원을 철저히 하면서 노인층과 함께하는 성장정책을 통해 정읍의 발전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 이 예비후보의 생각이다. 이를 위해 이 예비후보는 "농업을 활용한 돌봄농장(케어팜) 정책을 도입하여 어르신들에 대한 단계적 급식, 돌봄, 여가 등의 사업을 지원하여

일정한 소득과 건강하고 안락한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농협과 연계 교육형 농장 (1단계 주말농장식) - 방문형 치유농업(2단계, 노인유치원 개원) - 기계(체육)식 운동(3단계, 요양보호 개원)' 등으로 실천할 계획이다. 또 이 예비후보는 "노인, 여성, 장애인, 어린이,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와 저소득·취약계층을 비롯한 시민 모두가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규정을 제도를 정비하여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촘촘한 복지 도시를 구축하겠다"고도 밝혔다. 한편 이 예비후보는 대상포진 등 무료 예방접종 도입 및 확대 외에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는 장애인 복지 강화와 위기 가정 지원 ▲다문화 가족 안정화 지원 및 외국인 근로자 복지강화 ▲반려동물 놀이동산 조성 ▲노년 건강관리 반려동물 문화 조성 ▲노인·사회적 약자 교통이용료 지원 등 복지 확충 ▲독거노인 주거 및 보건의료 환경개선 등의 보건의료·복지 분야에서 모두 11개의 세부공약을 시민들에게 약속했다. /정읍=김대환 기자